

# ODA 리포트

2021  
Vol.2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기 26

발행인: 장영태 담당: 한덕훈, 김정현, 전혜은, 이지인 감수: 조정희

전화번호: 051-797-4666 E-mail: jh-kim@kmi.re.kr/odacenter@kmi.re.kr

발간년월: 2021년 08월 31일



## Contents

1

SDGs 관련  
국제 동향

2

해양수산 전문가 칼럼

3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4

주요 행사

# 1 SDGs 관련 국제 동향

## OECD

### 폐어구 유령어업 대응을 위한 G7의 행동계획

- (배경) 어구는 주로 합성 재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며, 폐어구는 미세플라스틱 오염과 외래생물종의 확산을 유발한다. 2021년 6월 11일~13일 런던 G7 정상회담 준비자료로 OECD는 『유령어업 대응을 위한 G7 행동계획 보고서』를 2021년 5월 21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OECD는 폐어구의 영향과 발생원인,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G7이 진행 중인 해양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이슈를 제시했다<sup>1)</sup>.
- (국제동향) 국제적 차원에서 G7은 해양쓰레기 퇴치를 위한 실천계획(G7 Action Plan to Combat Marine Litter)을 포함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폐어구 문제 해결책으로 어구 분실 방지, 분실된 어구의 회수 처리 및 영향 완화 등 여러 조치가 포함된다. 특히, 어구 표시제, 처리 시설의 제공, 해양공간 관리, 어구 설계 요건 추가, 어구 혁신을 위한 연구 지원, 교육 및 인식 개선 노력, 생산자 책임 확대 등 다양한 조치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sup>2)</sup>.
- (정책시사점) 폐어구가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다음의 방안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① 국제협력 및 국가 프레임워크 활용-국제적 차원에서 G7은 폐어구에 특화된 공약을 채택하고,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다. 글로벌 폐어구 관리계획(Global Ghost Gear Initiative, GGGI)와 같은 NGO와 민간 부문(어업인 포함)이 참여한 이해 관계자 간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어구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순환 경제 원리를 활용한다. G7 행동계획 등 OECD 차원의 폐어구 관리를 통한 유령어업 방지 정책을 우리나라 폐어구관리, 해양플라스틱 관리 정책에 참조하고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이지인 연구원, 김정현 전문연구원  
jinlee@kmi.re.kr / jh-kim@kmi.re.kr

1) 자료: OECD 웹사이트; [https://www.oecd-ilibrary.org/environment/towards-g7-action-to-combat-ghost-fishing-gear\\_a4c86e42-en?\\_ga=2.4360115.1265901605.1625470829-1479889044.1625470829](https://www.oecd-ilibrary.org/environment/towards-g7-action-to-combat-ghost-fishing-gear_a4c86e42-en?_ga=2.4360115.1265901605.1625470829-1479889044.1625470829) (2021.7.5. 접속)  
2) 출처: <https://doi.org/10.1787/a4c86e42-en> (2021.7.5. 접속)

## NOAA

## 해양 10년을 지지하는 NOAA 행동계획

- UNESCO IOC는 세계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60개 이상의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세계 각국의 참여와 협력을 촉구했다. NOAA는 이중 다수를 선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세계 해양 지도 작성을 목표로 하는 『해저 2030』의 공동리더로서 해안 위성 관측을 개선하고, 해수면 양식을 확장하고, 세계 해양 데이터베이스를 증진하고자 한다.

## 세계 해양 행동계획(2021~2030) 개념

- ① 오염원을 식별, 정량화 및 감소시키는 깨끗한 바다, 바다에서 오염 물질 제거
- ② 해양 생태계 분포도 작성과 보호되는 건강하고 탄력적인 바다: 기후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영향을 측정하고 그 영향을 저감하고, 해양 생태계 서비스 유지
- ③ 사회가 현재와 미래의 바다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예측된 바다 조건, 인간 복지 및 생계에 대한 변화 및 영향 예측
- ④ 인간 공동체가 해양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안전한 바다
- ⑤ 식량공급과 대체 식량공급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하고 수확가능한 생산적인 바다
- ⑥ 모든 국가, 이해 관계자 및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바다

- NOAA가 관여하고 있는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sup>3)</sup>: ① 기상, 기후 및 해양 예측을 개선하고 건강한 해양, 청색 경제, 지속가능한 식량 및 에너지를 촉진하고 위한 관측기반 지식을 제공하는 OASIS 대-해양 상호 작용 전략, ② 해양 음향 환경 연구 프로그램, ③ 국제 연안 “청색탄소” 프로그램: 연안습지를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통합하려는 국별 노력 지원, ④ CO2 관측 시스템 확장을 위한 지구해양 산성화 관측 시스템 변화 10년 프로그램, ⑤ NOAA 및 전세계 파트너가 참여하여 해양보호지역(MPA)을 해양 보존, 과학 및 해양력 이해 증진을 위한 장소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
- (정책시사점) UNESCO IOC의 해양 10년 행동계획을 이해하고 NOAA의 대응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해양정책 및 연구에 적극반 영하고 NOAA와 공동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 공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정현 전문연구원  
jh-kim@kmi.re.kr

3) 자료: NOAA 웹사이트; <https://research.noaa.gov/article/ArtMID/587/ArticleID/2768/NOAA-initiatives-among-the-first-round-of-Ocean-Decade-endorsed-actions> (2021.7.9. 접속)

## UN

## UN Food System Summit 2021 사전 회담 개최

- (배경) 2021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탈리아 정부 주관으로 로마에서 2021년 9월 뉴욕에서 열릴 UN Food System Summit 사전 회의를 주최하였다<sup>4)</sup>.
- \* UN Food System Summit 은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3개의 UN 기구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2019년 UN 사무총장이 Summit을 제안하였다.
- 전세계 30억 이상의 인구가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안보 측면과 영양실조 종식, 건강하고 자연친화적이며 회복력 있는 식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물(Blue foods)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왔다<sup>5)</sup>. 수산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를 UN Food System Summit에서 다각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정책시사점) 수산물 식품 시스템 지원 및 강화는 최소한 10개의 SDG (1, 2, 3, 5, 6, 8, 12, 13, 14, 17) 개선에 기여하는 등 SDG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6)</sup>: ①해양 및 담수 생태계 복원 및 보호(SDG14), 오염 감소(SDG6), 남획 및 남획을 조장하는 보조금 근절, 소규모 어업 지원을 요구하였다(SDG5), ②기아와 영양실조를 해결(SDG2,3)하고 빈곤을 줄이고(SDG1) 생계를 제공하며(SDG8), ③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에 대한 식량 시스템의 영향을 줄였다(SDG12, 13).
- SDG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인류 생존 지속을 위한 차원에서 Blue Food Summit에서 전세계 수산물 소비 1위국인 한국이 수산물 이용, 생산, 유통에 관한 다양한 정책의견을 제시하고 수산물 안정성과 유용성을 제고하며, 국제규범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정현 전문연구원, 전해은 전문연구원  
jh-kim@kmi.re.kr / jhaeeun@kmi.re.kr

4) UN Food System Summit 웹사이트; [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pre-summit\(2021.8.5.접속\)](https://www.un.org/en/food-systems-summit/pre-summit(2021.8.5.접속))

5) UN SDG 사이트; <https://sdgs.un.org/news/sustainable-blue-foods-are-vital-global-food-security-33148> (2021.8.5.접속)

6) FAO, Blue Food Pre-Summit Draft Concept Note

## UNEP

### 플라스틱 제로 바다 환경 개선 캠페인

- 매년 1,1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매년 바다에 투기된다. 플라스틱 오염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바다 환경 개선 캠페인(Clean Seas Campaign)』은 2017년 UNEP에서 호수, 수로 및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와 플라스틱 폐기물의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재 전 세계 해안선 60%, 62개 회원국이 캠페인에 참여 중이다<sup>7)</sup>.
- \* 해양은 지구 산소의 최소 50% 이상을 생산함. 해양 생태계는 전체 생물권 경제적 가치의 60%이상을 제공하며 5억 9천만명의 사람들이 생계를 해양 어업과 양식업에 의존하고 있다.
- (정책시사점) 깨끗한 환경을 누릴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안전하고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155개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해양쓰레기 및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는 환경권 수호는 정부와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기반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내법상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불이익을 오염원에게 묻고 이를 규제하는 법적 제도 정비 및 감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인, 단체, 기업, 기구, 정부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정현 전문연구원  
jh-kim@kmi.re.kr

7) 자료: UNEP 웹사이트; <https://www.unep.org/news-and-stories/story/clean-seas-campaign-promotes-right-healthy-environment-including-plastic> (2021.8.5. 접속)

## NOAA

##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발간: IUU 어업국, 해양보호 생물자원 부수어획국 발표

-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2021년 8월 의회에 격년으로 제출하는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에서 IUU 어업국 7개국을 발표하였다: 해당 국가는 중국, 코스타리카, 가이아나, 멕시코, 러시아, 세네갈, 대만이다. 2018년~2020년간 이들 국가의 선박이 IUU 어업을 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up>8)</sup>.
- \* 2019년 한국은 미국정부에 의해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2020.9.)되었으나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IUU 어업 활동 시정 조치를 인정받아 4개월 만인 2021.1. 중 미국 해양대기청이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하여 예비 IUU 어업국 지정조치가 해제되었다<sup>9)</sup>.
- 본 보고서에서는 어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여 해양보호 생물자원에 대해 부수어획국으로 식별된 28개국과 EU를 발표하였다: 알제리, 바베이도스, 중국,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이집트, 그리스, 그레나다, 가이아나, 이태리, 일본, 한국, 몰타, 모리타니아, 멕시코, 모로코, 나미비아, 포르투갈,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네갈, 남아프리카, 스페인, 대만,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터키, EU가 그 대상이다.
- (정책시사점) 미국이 지정한 해양보호 생물자원 부수 어획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규제 수준을 먼저 검토하고 가능하면 이를 우리나라 공해어업 관리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획과정에서 해양보호 생물자원 부수어획을 방지하는 다양한 어구를 개발하여 사용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한덕훈 센터장, 김정현 전문연구원  
[bansock@kmi.re.kr](mailto:bansock@kmi.re.kr) / [jh-kim@kmi.re.kr](mailto:jh-kim@kmi.re.kr)

8) NOAA 웹사이트; <https://www.fisheries.noaa.gov/international/report-iuu-fishing-bycatch-and-shark-catch> (2021.8.18. 접속)

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https://www.mof.go.kr/iframe/article/view.do?articleKey=28655&boardKey=10&currentPageNo=1>  
 (2021.8.18. 접속)

## 2 해양수산 전문가 칼럼

이지언, 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 해양 ODA 유·무상 융합의 필요성과 방향

해양은 지구 표면의 약 70.8%를 차지하고 있고 부피는 13.7억 km<sup>3</sup>로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97%를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 생물의 종류는 30만 종으로 해양은 전세계 동물성 단백질의 6분의 1을 공급하는 생물자원의 보고(寶庫)이자 막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국가간 배타적경제수역(EEZ) 확보를 위한 영토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해양은 전세계 물류 80%가 이뤄지는 무역통로로 경제성장의 동력인 한편, 인류가 배출하는 탄소의 약 23%를 포집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 30억 이상 인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이 산성화, 미세 플라스틱, 해상운송 연료로 인한 오염 등으로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저지대 거주 주민의 안전 및 생계 역시 위협을 받는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놓여 있습니다. 해양은 전 인류의 공동 관리 노력이 필요한 대표적인 ‘공유지<sup>1)</sup>’로 UN은 2015년 2030년까지의 전지구적 개발목표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시 최초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목표<sup>2)</sup>하에, 해양생태계 다양성(Marine Biodiversity), 해양 산성화(Ocean Acidification), 부영양화(Eutrophication), 오폐수 배출(Water Discharge to Ocean), 기후탄력적 해상교통(Climate-resilient Maritime Transport) 등을 해양분야의 주요 도전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해양분야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EDCF의 해양·수산 분야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총 지원규모의 3.8%인 약 7.3억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세부분야별로는 항만 등 해상교통 인프라(3.7억 달러), 해상교통안전(2.4억 달러), 어업(0.8억 달러), 선원양성 교육(0.4억 달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상원조 역시 해양수산부를 포함하여 해양과학기술, 수산과학, 수산자원, 해양조사, 해양환경 등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sup>3)</sup>이 ODA를 지원하고 있으나 ‘21년 해양수산부 관련 부처 예산 규모는 118.6 억원<sup>4)</sup>이며 이 가운데 해양과학기술원의 ODA 예산규모만이 50억원 정도로 우리나라의 해양 ODA는

1) 해양은 UN 국제해양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에 따라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해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공동 활용이 가능한 공해(公海)로 非배제성 및 경합성을 지닌 공공재적 성격을 보유

2) SDG 14(Life below water)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 해양과학기술원, 항로표지기술원, 어촌어항공단, 해양조사원, 수산자원공단,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개발원, 해외어업협력센터, 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원, 한국원항산업협회 등이 해양수산 ODA 사업을 시행 중(2021년 현재 기준)

4) 요구액 기준

규모와 체계 면에서 아직 시작단계라고 생각됩니다. 해양 ODA는 EDCF와 무상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지원규모 확대 및 고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 특히 유·무상 연계, 또는 융합의 시각에서 해양 ODA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시행기관을 통한 개도국 해양·수산분야 최상위 전략수립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무상원조는 수원국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만으로도 추진 여지가 있는데 반해 차관도입은 중앙정부가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 사업, 기술 등이 수원국 국가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면 관련 사업은 한국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양 ODA 사업 가운데서는 해양수산부가 사업타당성조사를 지원한 이후 탄자니아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되어 현재 양국 정부의 정책협의를 앞두고 있는 바가모요어항개발사업이 개발도상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조사연구 활동이 EDCF 사업 발굴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수적으로 국가 또는 섹터개발계획 수립, 개별사업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 전문가와 수원국 정부내 주요 부처 고위 기술관료(technocrat)와의 활발한 밀착 의사소통은 사업형태, 추진방식 등 모든 면에서 한국형 ODA에 대한 수원국의 선호도를 제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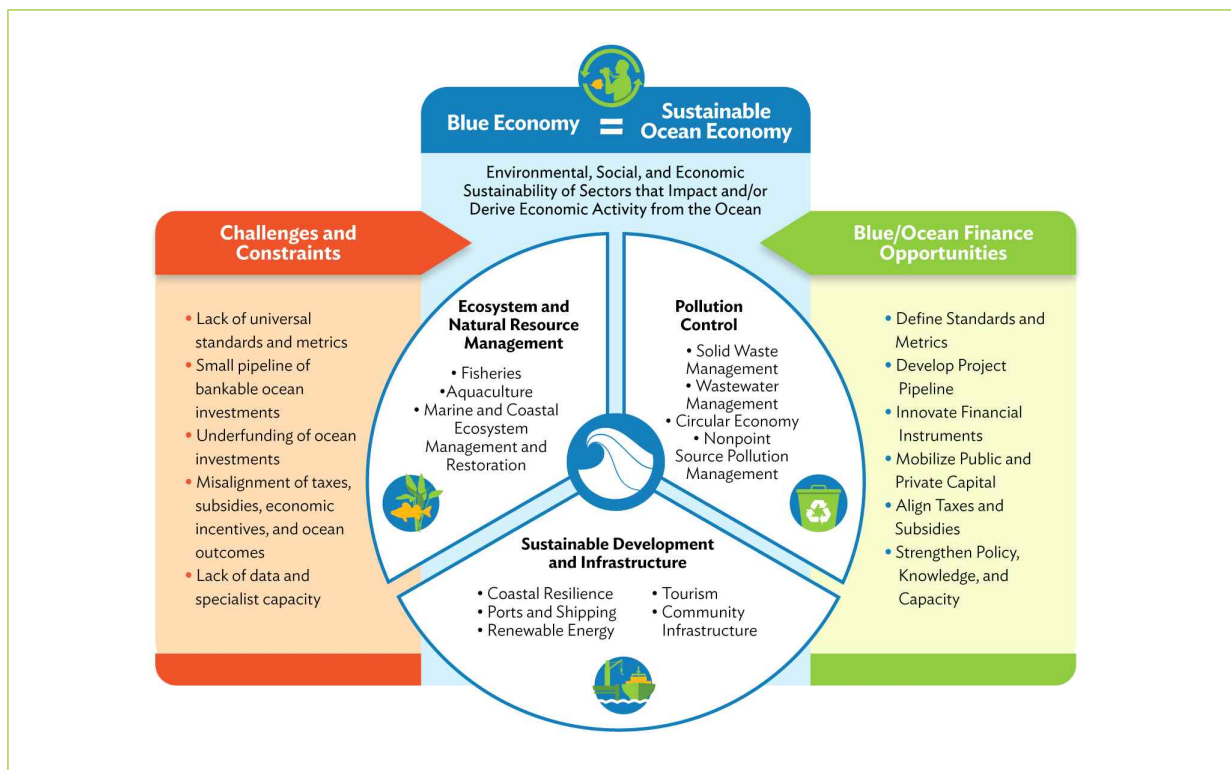
둘째, 해양·수산 분야의 유무상 연계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예정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EDCF와의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상원조기관이 EDCF 지원대상국이 아닌 국가를 대상으로 마스터플랜이나 사업타당성조사를 지원하여 차관사업화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거나, 무상원조기관이 지원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수원국이 차관도입을 통한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사업초기 EDCF와의 사전협의가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추진된 한 내륙항개발사업은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항구의 소유와 운영권이 지방항만청에 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항만청 상위부처와의 합의 결과만을 근거로 추진되다가 결국 심사 단계에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사업기획 단계에서의 수원국 정부와의 의사소통 및 조사내용의 부실은 한국 ODA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차관사업화를 기대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컨설팅이나 타당성조사 등을 추진할 때는 가급적 후보사업 선정 단계에서 EDCF의 의견을 조화하길 권장합니다.

셋째, 국가별, 분야별 해양 ODA 지원전략 수립에 전문성을 보유한 무상기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해양 ODA는 항만, 해상교통 등 교통인프라, 어항개발, 수산물가공·유통 등 해양식량자원 개발, 수자원, 폐기물처리 등 해양오염 통제 분야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고, 각 세부분야는 무역, 관광, 보건·위생, 해양생태계 보호 등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디까지가 해양 ODA인지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가운데, 실적관리 체계 역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원규모 등 우리의 지원역량

5) 수원국별로 무상기관의 지원으로 한국컨설턴트가 수행한 타당성조사 품질에 의문을 제기하며 EDCF 지원 F/S에 대해 로컬인력 활용만을 요구하거나, 자국 국가개발계획 미포함 분야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관도입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함.

제약하에 수원국별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토대로 국가별, 세부 분야별 지원 우선순위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차관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국가와 지원분야를 더욱 구체화하고, 지원사업 유형별로 사업범위, 사업추진구조, 운영방식,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는 사업모델을 정립해야 합니다. ADB의 경우, 지난해 그간 국제사회의 해양개발협력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해양경제(Blue Economy)의 범위를 생태계·천연자원관리, 오염통제, 지속가능 인프라로 확정하고, 금융가능성(Bankability)을 고려하여 세부분야별 후보사업 파이프라인을 구체화<sup>6)</sup> 하였습니다. 물론 국가별 지원전략과 사업유형별 지원모델을 정교화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사업 유형별로 유상과 무상, 민간자금 참여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해양 ODA 사업의 금융구조화 지침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해양경제(Blue Economy) 지원을 위한 해양금융의 구성 ]



자료 : 「The Role of Ocean Finance in Transitioning to a Blue Economy in Asia and the Pacific」, ADB, 08 June 2020 참고

6) <https://development.asia/explainer/role-ocean-finance-transitioning-blue-economy-asia-and-pacific> Figure 2(Project Pipeline of Blue Economy Segments Alignment with Financial Returns) 참조

마지막으로 유상원조를 취급하는 입장에서 해양 ODA 분야 전문 무상기관의 기술협력 범위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EDCF 사업은 대부분이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수원국 정부의 복잡한 차관 절차<sup>7)</sup> 이행 및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하여 단계별로 다양한 기술협력을 요구합니다. 전략단계에서는 국가개발계획 등 정책수립이, 발굴단계에서는 마스터플랜, 사업모델 컨설팅 등이, 준비단계에서는 사업타당성조사가, 실행단계에서는 각종 기술자문, 사업관리인력 파견이, 사업완공 이후에는 교육, 훈련, 운영지원 등 모든 기술협력은 무상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주로 역량강화, 조사인프라 구축, 초청연수 등으로 구성된 현재 무상 해양 ODA의 기술협력 범위를 보다 확대한다면 보다 원활한 유·무상 연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원조 시행기관 다원화<sup>8)</sup>를 사유로 한정된 정부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원조사업간 연계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양 ODA는 비단 정책당국의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규모도 작고, 지원형태도 단순하여 단기간내 유·무상 연계 성과를 창출하기는 어려운 분야입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역량 대비 아직 초보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잠재력 및 사전적 유·무상 융합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략, 해양분야 국제개발협력 이슈, 사업 정보를 망라한 유·무상 협의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보존과 활용' 과제에 부합하는 해양 ODA 융합사업 사례가 창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 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이지연 팀장

#### 〈주요 이력〉

2021. 1~ 현재	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전략기획팀장
2019. 1~ 2020. 12	수출입은행 경험사업1부 아시아3팀장
2017. 1~ 2018. 12	수출입은행 해외사업개발단 국제협력팀장
~ 2016	국별전략실 해외사업개발팀장, 북경사무소 주재원

본 칼럼의 내용은 ODA 전문가로서의 의견으로 KM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7) 개도국 차관공여를 위해서는 정부간 공여협정(Agreement), 개별사업에 대한 정부간 시행약정(Arrangement), 개별사업에 대한 시행약정 대신 다년간 포괄적으로 EDCF 지원한도 및 조건을 명시하는 기본약정(Framework Arrangement), 차주 및 수출입은행간 차관 협상(Loan Negotiation) 및 차관공여계약(Loan Agreement), 구매계획(Procurement Plan), 이주계획(RP), 환경사회영향관리계획(ESMP) 등 차관공여계약에 의거 사업관리 관련 다양한 절차 수반

8)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를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탁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무상원조는 외교부 산하의 KOICA 등 42개 시행기관이 수행

## 3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 베트남

#### 베트남 북부지역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사업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베트남 북부지역 수산양식 품종의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류 새우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맹그로브 숲 조성 배후지 내 양식장 조성, 종패 중간양성장 개발 등 공동연구, 양식 산업 인프라 구축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방안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산림청 '맹그로브 숲 조성'융합사업)
- (사업목적) 베트남 북부지역 수산양식생물의 지속적 생산기반 구축 및 이매패류의 상업적 가치 증진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 ● 사업 주요경과

- (2017.11.) 베트남측 수요 확인 및 사업 지역 사전조사(산림청)
- (2018.1.) 수과원-산림청간 융합사업 추진협의회 개최
- (2018.3.) 수원총괄기구 사업요청공문 및 PCP 접수
- (2020.3.) 부처간 융합사업(해수부-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예산반영
- (2020.6.~11.) 베트남 북부지역 수산양식산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 (2021.7.) 베트남과의 MOU 및 RoD 체결 준비를 위한 수과원, 산림청,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및 수산연구소(RIA1)과 영상회의
- (2021.7.) 베트남과의 MOU 및 RoD 체결 준비를 위한 수과원, 산림청,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MARD) 및 수산연구소(RIA1)과 영상회의

● 기대효과

- 베트남 패류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 및 수산양식산업 활성화
- 베트남 북부지역 이매패류의 상업적 가치 증진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고용창출 등 생계유지 및 향상
- 한-베트남 교류협력강화(新 남방정책 부흥) 및 상호이해 증진
- 국내 관련 업계 해외진출 교두보 및 시장 확대 기회창출

● 관련 사진



맹그로브숲 사이 백합양식장(경관)



백합양식장(현지 시설)



양식장 조성사업 대상지역(남딘,닌빈)



종패 중간양성장 시설개선 대상지역(RIA 1)

국립수산물연구원 연구협력과 민은영 연구사  
jxheart@korea.kr

## 마이크로네시아

### 마이크로네시아 열대관상어자원개발 및 기술 전수사업

####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열대관상어자원개발 및 기술 전수를 위한 인프라 지원, 기술교육 및 유통망 구축사업
- (사업목적) 마이크로네시아에 풍부한 열대관상어 자원개발 인프라 지원 및 기술을 전수하여 저소득국 소득창출 기반 마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 추진현황 및 계획

- (2017년) 육상배양장 구축 및 생물수집선 지원, 생물배양기술 전수
- (2018년) 해상배양장 구축 및 유통망 설계, 생물관리기술 전수
- (2019년) 배양장 운용기술 전수 및 유통망 구축지원, 생물생산기술 전수
- (2020년) 생물생산인프라 운용 및 생물생산기술 전수
- (2021년) 생물생산인프라 및 운송체계 통합관리기술 전수 진행

#### ● 기대효과

- 태평양 도서국 연안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기반 마련에 기여
- 저소득국 소득창출 기반 마련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태평양 도서국의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해양자원개발 기술 접목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양자원개발 모델 개발 기대

● 관련 사진

- 관상생물 생산인프라 구축 지원
  - 육상배양장 및 생물수집선 구축 지원, 현지주민 생물생산 실습교육

[ 구축된 생물생산 인프라 활용 모습 ]



- 관상생물 인프라 운용을 위한 역량강화
  - 생물생산 실습 교육, 현지 관계자 국내 산업현장 초청연수

[ 생물생산 실습교육 및 산업현장 초청연수 ]



KIOST 해양생물자원연구단 최영웅 책임연구원  
yuchoi@kiost.ac.kr

## 4 주요 행사

### 제2차 한-환인도양연합(IORA) 파트너십 세미나

- 7월 8일~9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
- “청색경제” 협력을 주제로 한 제2차 한-환인도양연합(IORA) 파트너십 세미나를 외교부 아태협력과와 KMI, KIOST가 공동개최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IORA 현지 전문가는 온라인 참석

※ 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 환인도양연합 23개 회원국, 대화상대국 9개국.

우리나라는 '18년 대화 상대국이 됨.

- 회원국(23개국) : ▲(서남아)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동남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평양) 호주 ▲(중동) 이란, UAE, 예멘, 오만  
▲(아프리카) 남아공, 케냐, 소말리아, 탄자니아, 세이셸, 코모로, 모리셔스,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서유럽) 프랑스

- 현장 참석자
  - IORA 사무국, IORA 회원국 주한공관 UAE대사, 남아공, 탄자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프랑스, 케냐, 나미비아 등 12개국 대사관 외교관 참석
  - 해양/수산/해운/항만 국내 전문가
- 주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IORA 청색경제 파트너십」
  - 3세션 진행: 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전과 발전, ② 지속가능한 해양 교통 연결성 증대, ③ 청색 경제의 잠재성 실현
- 기대효과
  - 동아프리카, 인도, 아세안 등 인도양 권역 국가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활용하여 향후 해양수산 분야 국제협력 및 ODA사업 발굴 확대 기회로 활용



단체 사진



토론

## 융합 ODA 발굴을 위한 협의회(KREI-KMI)

- 일시: 8.17. 오후 3시~5시, 온라인
- 참석대상: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KREI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 논의내용: 『키르기스스탄 국립수산물양식센터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과 가나 사업 등 농림-수산 융합 ODA 사업 추진 논의

## KOICA 글로벌연수: IUU 어업관리 역량강화(2021-2022)

- 사업목적: IUU 어업 및 수산자원 관리 체계와 방법 공유를 통해 수원국의 IUU 어업 감시 체계 구축 환경 마련에 기여
- 사업진행: 발표 16개(15개 강의와 1개의 액션플랜 워크숍)
  - 참여국가: 호주, 미국, 한국 3개국
  - 참여국제기구: FAO, ILO, IMO, Global Fishing Watch
- 기대효과: 케냐 해양수산 공무원 23명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지원
- 연수시기: 2021년 9월 6일~10일/온라인연수
- 시행기관: KMI 국제개발협력센터